

소쉬르의 언어사상에 이르는 길

《소쉬르: 현대 언어학의 원류》 펴낸 김방한 교수

1907년 1월 16일, 스위스의 주네브 대학 강의실. 하나의 역사적인 강의가 시작되고 있었다. 지도교수는 페르디낭 드 소쉬르였고 등록생은 고작 여섯명. 이 강의가 후에 20세기 인문학의 페르다임을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 학생들은 소쉬르의 강의를 대학노트에 촘촘히 적어갔다. 이 강의는 1910년 7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계속되었다.

병적 세밀성과 극도의 완벽성을 추구했던 소쉬르는 그날그날의 강의초안을 모두 찢어버려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그의 사후 학생들의 강의노트를 기초로 1916년 《일반언어학 강의》(CLG)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언어학적 인식지형을 획기적으로 변형시켰지만 소쉬르 자신의 저술이 아니라 운명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한국 언어학계의 대가인 김방한 서울대 명예교수(73)가 펴낸 《소쉬르: 현대 언어학의 원류》(민음사)는 바로 CLG의 학문적 체계와 정신을 명석하게 복원해냈다.

인문학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

“소쉬르는 현대 언어학의 원류로서 언어학뿐만 아니라 철학·인류학·정신분석학 등 인문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프랑스 사상계를 석권했던 구조주의 철학은 소쉬르의 구조언어학으로부터 발원되었지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소쉬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소쉬르는 해방 전부터 일본어 번역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단편적인 언급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소쉬르의 생애와 학문, CLG에 대한 문헌학적 검토, 그리고 CLG의 이론적 배경과 성과 등을 아우르고 있는 이 책은 소쉬르가 구성한 언어이론의 본질을 파악하고 CLG의 숙명적인 결함을 여러 가지 원재료를 통해 해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록으로는 제2차 언어학 강의의 강의록을 번역해 수록했다.

“최근 유럽에서는 CLG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1957년 소쉬르의 제2차 언어학 강의록이 재발굴된 것이 그 계기가 되었죠. 제자들이 CLG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오류와 결함이 있었다는 점이 발견된 것입니다. 발전과정에서 동요하고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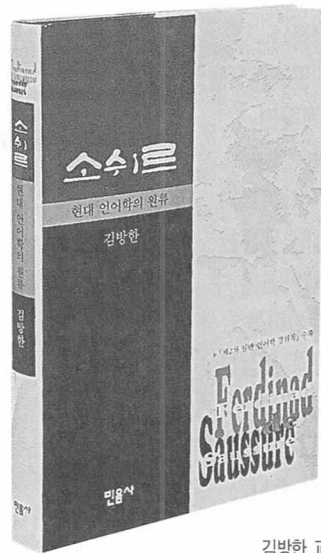
“소쉬르는 언어를 내재적 체계로 해석했습니다. 언어의 역사적 분석보다는 공시태를 중시하며 ‘관계’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죠. 소쉬르의 언어사상은 총체적으로 일반언어 이론을 구축하려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쉬르는 언어를 서로 관련된 기호의 체계라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러한 관계의 성질과 그것을 지배하는 원리를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완성이던 소쉬르의 사상을 편집자들이 무리하게 고정한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소쉬르의 약동하는 사상이 CLG에는 충실히 반영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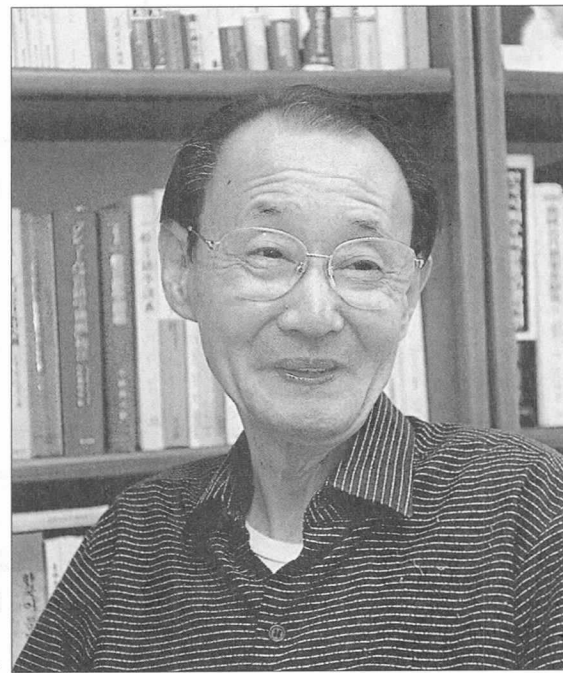
소쉬르의 언어학은 인문학적 사유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가져왔다. 그리스 시대부터 서유럽의 형이상학을 지배하고 있던 로고스 중심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가했기 때문이었다. 말의 의미는 언어기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호언어의 차이의 체계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었다. 언어학의 연구대상으로 ‘말’을 확립시킨 것도 소쉬르의 공헌이었다.

“소쉬르는 언어를 내재적 체계로 해석했습니다. 언어의 역사적 분석보다는 공시태를 중시하며 ‘관계’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죠. 소쉬르의 언어사상은 총체적으로 일반언어 이론을 구축하려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쉬르는 언어를 서로 관련된 기호의 체계라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러한 관계의 성질과 그것을 지배하는 원리를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김교수가 소쉬르에 대한 연구서를 준비한 것은 10여년 전부터. 90년 정년퇴임 후 소쉬르 연구를 시작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병마가 찾아들어 작업은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폐암진단을 받은 것이다. 92년 대수술을 받고 생명을 기약할 수 없게 되자 회고록부터 집필하기 시작했다. 96년에 언어학 자로서의 생애와 학문을 밝힌 《한 언어학자의 회상》(민음사)을 펴내고 비로소 소쉬르



김방한 교수



에 집중할 수 있었다.

“원래는 소쉬르 연구서를 약 5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결국 연구의 개요만이라도 완성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회고록 끝에 소쉬르에 대해 연구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셈입니다.”

한국 언어학의 개척자

김교수의 학문적 편력은 독특하다. 당시 인문학에서 가장 인기 없던 언어학을 공부했고 언어학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없었던 역사-비교 언어학을 전공했다. 중학교 때부터 남들 다 싫어하는 문법에 관심이 많았다. 해방 후 영문법을 전공하기 위해 서울대 영문과에 입학했으나 전공자가 한명도 없어 2학년 때 언어학과로 전과했다.

당시 스승이었던 김성기 교수의 영향으로 인도-유럽어에서 알타이어로 연구주제를 바꿨다. 김교수는 연구 범위를 확대해 언어일반이론, 알타이어 연구, 국어계통론 연구 등을 아울러왔다. 지금까지 《언어학 논고》·《언어와 역사》(서울대출판부), 《한국어의 계통》·《역사-비교언어학》·《어원론》(민음사) 등의 저서를 펴내 한국 언어학의 황무지를 개척해왔다.

“학문하는 과정에서 거의 스승이 없었던 상황이라 독학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방 후 좌우익의 분열 속에서 학문에 뜻을 둔 사람이라면 대부분 비슷했지요. 특히 몽고어를 배울 때는 암호를 해독하듯이

익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학자의 설움을 많이 겪은 셈이지요.”

초창기에 언어학에 관한 책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였다. 개인적으로 외국인 신부를 통해서 책을 사서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 결과가 첫번째 저서 《언어학 논고》에 반영되었다. 일석 이희승 선생은 서평에서 “이 책을 기점으로 해서 비로소 한국 언어학이 출발한다”고 칭찬해주기도 했다.

언어학자로서 언어 습득은 필수적이었다. 학부과정에서는 영어 외에 프랑스어·독일어·러시아어·그리스어·라틴어·산스크리트어를 배워야 했다. 그 중에서 독일어·프랑스어·러시아어는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지금은 연로해 흐릿해졌지만 기본적인 언어는 거의 기억하고 있다.

“희랍어는 신부를 통해 배웠어요. 까다로운 교육방식 때문에 한번 낙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혹독한 훈련 때문에 기억이 오래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언어학도들은 하나의 언어만 습득하면 된다고 생각해 안타까워요.”

수술 후에도 2~3년간 대학에서 강의를 계속하기도 했다. 노환과 병마가 겹쳐 거동이 불편하지만 자신이 펴낸 책들을 손보느라 여전히 분주하다. 지금까지 몽고어에 관해 연구한 논문들을 정리해 책으로 펴낼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김교수의 개척자적 연구성과가 일본에서도 평가받아 《역사-비교언어학》이 일본의 이스미야 출판사에서 번역될 예정이다. — 박천홍 기자